

## ■ 2026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사시조) 1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사업 (시·시조)
- 회의일시 : 2026년 1월 24일(토), 13:00~15: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 언, 김정경, 이기성, 한분순, 허연 심의위원

2026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사업은 문학계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여온 작가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활동지원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후속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적 성장과 공공적 기여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류상의 결격이 있는 신청서를 제외하고, 시·시조 분야에서는 총 156건(시 134건, 시조 22건)의 지원신청서를 5명의 심의위원이 심의했습니다. 심의기준과 각각의 가중치를 밝히면, 신청주체의 사업수행역량 50%,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40%, 문학 생태계 기여도 10% 등입니다. 이러한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먼저 심의위원 각자가 154건의 지원신청서를 전수 검토하고 채점하는 개별 심사를 했으며, 이후 심의위원 5명이 모두 모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층 토의한 끝에, 최종 시 20건, 시조 2건 등 총 22건을 선정하여 2차 심의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개별 심사 단계에서 이미 확인된 바지만, 지난 10년간 뛰어난 문학적 역량으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온 지원자의 신청이 예상을 웃돌 만큼 많았습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청주체의 사업수행역량’ 항목에서 수상 경력과 번역 실적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참고하여 평가하고,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는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의 참신성, 충실성, 구체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주된 평가 기준으로 삼아 심층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주체의 사업수행역량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은 22건의 지원신청서가 2차 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뛰어난 문학적 역량을 지녔음에도 사업계획 측면에서 미비점을 보인 경우, 향후 사업계획이 참신하고 충실하게 기술되었으나 기존에 인정받은 문학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우, 두 경우 모두 아깝지만 2차 심의 대상이 되기 힘들었음을 밝힙니다. 그만큼 우수한 문학적 역량과 참신한 기획력을 두루 갖춘 지원자의 신청이 많았다는 사실도 함께 짚어둡니다.

심의를 마치면서 심의위원들은, 창작자 고유의 문학성뿐만 아니라 기획력까지 고려해야 하는 당대의 기류를 실감하면서도, 과연 이 시대에 시는 무엇이고 시인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새삼 질문케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견과, 시조의 경우 복잡한 현대성을 반영하면서도 시조 고유의 간결한 미학성과 정형성을 어떻게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또한 시에서든 시조에서든 기존의 문학적 역량뿐만 아니라 가능성과 참신성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반대로 문학적 역량이 충분함에도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럼에도 이번 심의에서는 주어진 심의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의견 등을 다양하게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 사업이 여러 제도적 보완을 거쳐 올해의 사업으로 이어졌듯이,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보완점도 세심히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지원 제도도 결과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한국 문학의 미래를 밝히는 차원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고민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붙입니다.

심의위원 일동